

[ 종합·국제 ]

# 광주·전남 비례대표 당선권 9명

## 민주 4명 한나라 5명, 평균나이 57세 재산은 19억원

18대 총선에서 통합민주당과 한나라당으로부터 비례대표 당선권에 공천을 받은 광주·전남 출신 인사 9명의 평균 나이는 57.7세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가 5명으로 가장 많았으며 50대가 2명, 40대와 30대가 각각 한 명씩인 것으로 분석됐다.

민주당의 비례대표 당선권인 18번까지에 광주·전남 인사는 서종표(63·8번), 김충조(66·12번), 김유정(39·여·15번), 김학재(63·18번) 후보 등 4명이 있다. 또 한나라당의 경우 당선권인 28번까지 임두성(58·2번), 김장수(60·6번), 김소남(58·여·7번), 이정현(49·22번), 박재순(63·28번) 후보 등 5명이 있다.

민주당 후보의 평균 나이는 57.8세, 한나라당 후보의 평균 나이는 57.6세로 비슷했다. 최고령 후보는 민주당의 김충조 후보로 66세였으며 최연소 후보는 같은 민주당의 김유정 후보로 39세였다.

대부분 남성 후보였으며 김유정 후보와 한나라당의 김소남 후보만이 여성이었다.

이들 9명의 비례대표 후보 평균 재산은 19억383만원. 민주당 후보의 평균 재산이 30억7천728만원으로 9억6천508만원에 그친 한나라당 후보의 평균 재산보다 높았다. 전 법무차관을 지낸 김학재 후보의 재산이 90억6천267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호남향

우회 전국여성회장이 김소남 후보의 재산이 25억9천623만원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16대 국회의원을 지낸 김충조 전 의원의 재산이 1억1천393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후보들의 병역을 살펴본 결과, 7명의 남성 후보 중 병역을 마친 후보는 3명에 불과한 반면, 병역 미필 후보는 4명이 나왔다. 또 9명 후보 모두 전과 기록이 없었다.

최근 5년간 재산세와 소득세, 종합세 등 납세 실적은 정당 활동을 했던 김유정 후보가 2억3천884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사회복지운동을 했던 임두성 후보는 254만원으로 가장 적었다. /박지경기자 jkpark@kwangju.co.kr



미국 민주당 대선주자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뉴욕주)이 26일(현지 시각) 워싱턴의 DAR 컨스티튜션 홀에서 유세하던 중 어머니 자신을 소개하는 말 걸시의 말을 듣고 있다. /연합뉴스

# “6자회담 당사국 인내심 한계 다다랐다” 한미외무 북핵 조속 신고 촉구

한미 양국 외무장관은 26일(현지 시각) 북핵신고에 대한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측에 조속한 시일 내 안전하고 정확하게 모든 북한의 핵프로그램을 신고할 것을 촉구했다. 유명한 외교통상부장과 콘돌리자 라이스 국무장관은 이날 국무부 청사에서 오찬을 겸한 한미외무장관 회담을 가진 뒤 기자회견을 통해 북한이 핵신고 약속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데 대해 6자회담 당사국들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르고 있다며 이 같이 밝혔다.

유 장관은 당초 합의했던 시한을 넘긴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문제에 대해 “시간과 인내심이 다해가고 있다”며 “북한이 좋은 때를 놓치지 말고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신고를 제출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라이스 장관도 “우리는 북한 영변 핵원자로 불능화와 관련해서 어느 정도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한 뒤 “그러나 이제 정말 (북핵문제가)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해서 핵신고문제에 대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라이스 장관은 “정확한 신고사항도 중요하지만 제대로 신고하는 게 더 중요하다”면서 “우리가 지금의 상황에 너무 오랫동안 머물러 있다는 데 대해 유 장관과 완전히 동의한다”고 말했다. 미국과 미국은 작년 북핵 6자회담 ‘2.13합의’와 ‘10.3 공동선언’에

# 부토 前총리 테러 용의자 증거 부족 풀려나

지난해 10월 파키스탄 카라치에서 고(故) 베나지르 부토 전 총리를 상대로 한 자살 폭탄테러에 연루된 혐의로 구금된 카리 사이 풀라 아크타르가 26일 증거 불충분으로 풀려났다고 수사 관계자가 밝혔다. 부토 전 총리는 150명이 희생된 당시 폭탄테러에서 살아 남았으나, 2개월 후 또 다른 폭탄 공격을 수반한 총격으로 사망했다. 아크타르는 지난해 라호르에

서 체포돼 카라치 경찰로 넘겨져 조사를 받아 왔으나, 법원은 이날 계속 구금할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석방을 명령했다. 경찰은 그러나 연루 혐의를 계속 수사 중이며, 증거가 포착되면 또 다시 체포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21명의 희생자를 낸 지난 11일 라호르 폭탄테러에 연루된 용의자 모하메드 아파즈는 이날 경찰서에 구금된 상태에서 사망했다. /연합뉴스

# 광주·전남 부재자 신고자 7만426명

■ 확정된 부재자 신고인수 (단위:명)

구분	광주	전남	계	44,015
계	26,411	목포시 5,306	장흥군 1,133	
총구	2,397	여수시 5,378	강진군 923	
서구	2,558	순천시 4,927	해남군 2,266	
서구	3,086	나주시 2,671	영광군 1,251	
남구	4,605	광양시 2,424	무안군 2,527	
북구	3,564	담양군 1,170	함평군 791	
북구	5,401	곡성군 807	영광군 1,703	
광산	2,930	구례군 615	장성군 939	
광산	1,870	고흥군 2,041	완도군 1,934	
		보성군 1,311	진도군 753	
		화순군 1,453	신안군 1,692	

# YS·JP 회동 “李대통령에 배신감”

김영삼(YS) 전 대통령과 김종필(JP) 전 자민련 총재가 26일 강남의 한 음식점에서 만찬회동을 갖고 최근 한나라당의 총선 공천 결과를 놓고 강력하게 성토했다고 알려졌다. 지난 대선기간 이명박 대통령을 도왔던 두 사람은 이번 공천에서 당내 측근 인사들이 탈락한 것에 대해 불만을 토로했고 이 대통령에 대한 간접 배신감을 나타냈다고 양측 측근들이 27일 전했다. 김 전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김덕룡 의원은 박근혜 쪽으로 가려고 했는데 내가 권유해 이 명박쪽을 지원했다. 그런데도 공천에서 떨어뜨린 것은 인간적으로 할 일 아니다”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 오바마-힐러리 사퇴 민주당원 의견 팽팽 공화 당원들은 힐러리 경선 포기 더 원해

오는 11월4일 미국 대선에서 공화당 존 매케인 상원의원에 어부지리를 안겨주지 않기 위해 민주당에서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과 힐러리 클린턴 상원의원 가운데 누가 사퇴해야 하느냐를 놓고 민주당원들 간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롭게도 공화당원들은 오바마보다 힐러리가 경선을 포기하는 쪽을 더 원했다.

26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라스무센에 따르면 전국 전화 설문조사에서 민주당원들 간에는 오바마와 힐러리 가운데 둘 중 하나가 먼저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이 22%로 팽팽했다. 하지만 민주당원의 절반이 넘는 62%는 누구 중 한 명이 사퇴하는 상황에 대해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답했고 전국 지지도 조사에서도 오바마와 힐러리는 똑같은 45%를 기록했다.

오바마 지지자들 가운데 47%가 힐러리가 사퇴해야 한다고 했고 힐러리 지지자들은 38%가 오바마가 포기해야 한다고 답했다. 오바마와 힐러리 모두 다 사퇴를 원한다는 민주당원들도 있었는데 이들 비율은 6%였다. 반면 공화당원들 중에서는 힐러리의 사퇴를 바라는 비율이 41%로, 오바마가 경선을 포기하기를 원하는 비율 24%보다도 훨씬 높았다. /연합뉴스

**산행안내**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www.naeytsung.com

529-0090

**교사임용시험?**

관내영교육학

교육학, 초등교육, 유아교육

www.naeytsung.com

529-0090

**공인중개사 전문학원**

제18회 공인중개사시험 새출발 전국 수석 2명 배출(연태환, 박, 최영아)

개강 4월1일 합격

전남고시학원

**공인중개사**

수강료 50% 환급과정

전남고시학원

236-2467~8